

## 제 4 강 20세기 수사학의 재비상

### ◆ 1교시 학문의 본질로서의 고유성

#### ▲ 강의에 앞서

오늘이 4주차가 되는데, 오늘로 하면 딱 반이 되죠! 그런데 그 반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이 뭐 내용상으로 어떤 관계가 있지는 않아요. 내용상으로 오늘까지 한 내용이 반이고 또 나머지 반이 또 새로운 내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그 4주, 5주차 오늘 이야기를 드릴 것하고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할 것하고 이 두 가지가 이제 연관이 될 수도 있고. 크게 보면 이제 앞부분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주로 좀 더 뭐라고 할까요, 그 인식론적인 차원.

물론 인식론이란 말도 지난번에 쓰면서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더 큰 차원에서의 인식론, 그 다음에 오늘하고 다음 주에 말씀드릴 내용은 좀 더 이렇게 내부적인 내용,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로는 좀 더 비교적 현대 언어 이론들, 그 몇 가지 이론들을 놓고서 서로 비교를 해 가겠는데.

#### ▲ 지난 시간에

첫날 첫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은 제목이 ‘철학의 언어’, ‘언어의 철학’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언어가 철학에서 문제가 되는 것, 어떤 차원에서 언어철학이라고 한다면 뭘 이야기 하는지에 대해 보았어요.

언어로 철학을 한다는 건, 그러니까 언어를 철학적으로 접근한다는 이야긴지 아니면 그 철학의 문제에 있어서 언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언어의 문제가 곧 철학의 문제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건지 뭐 그런 다양한 언어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관점들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 2주차에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들이 형이상학적인 관점., 뭐 다른 말로 한다면, 물론 형이상학이란 말이 그때도 말씀드린 바대로 굉장히 그 다양한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존재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언어.

그 다음에 인식론적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그 언어 그런 내용들을 다뤘었고, 그 다음에 이제 3주차에서 수사학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철학과 수사학의 어떤 그런 문제. 그러니까 고대인들이 언어를 둘러싼 논쟁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 ▲ 인식론의 범주

아까도 인식론이라는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의 정확한 의미를 어떻게 보면 서구사회에서, 영미권에서 쓰고 있는 내용하고 프랑스라든가 이런 대륙에서 쓰고 있는 그런 내용들하고, 같은 인식론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그 범위와 내용이 많이 달라요.

물론 그걸 크게 보면 다 같은 내용 안에서 같은 범주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는 관점은 어떻게 보면 그 다시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언어의 문제에서도 ‘크게 보면 다 언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이렇게 저렇게 다 언어니까 다 똑같은 언어철학이다’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그런 거하고 똑같은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는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꼭 같은 내용을 얘기 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거죠.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토마스쿤’같은 사람이 이야기를 했던 그런 의미에서의 ‘과학철학’, 그것을 ‘인식론적인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그 대륙에서 말하는 그 인식론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과학철학’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 건데. 반면에 지각을 포함한 그 어떤 인식작용 있잖아요? 인지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또 다른 의미에서의 그 ‘인식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 차원으로 본다면 ‘어떻게 인간이 인식을 하는지’, ‘지식을 어떻게 습득하는지’라든가 이제 그런 내용을 다루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다뤘던 내용은 이제 이 강의에서 다뤘던 ‘인식론’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서는 그런 의미로 썼던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그 다양한 사조들 사이에서 어떤 하나의 사조가 하나의 스펙트럼 혹은 하나의 패러다임, 주된 패러다임을 형성을 하고, 큰 스펙트럼 안에서 그것이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변형하는 그런 시기를 거치다가, 위기가 찾아오고 다른 이론에 의해서 비판이 되고 그것이 이제 다른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되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의 인식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세계를 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관념이 먼저인지 아니면, 먼저 주어져 있는 어떤 세계가 먼저인지. 그런 관계에서의 이야기를 했던 거죠.

#### ▲ 인식론의 두 가지 관점으로 살펴본 수사학을 둘러싼 논쟁

그래서 이제 서로 저 대립되는 두 가지 관점에서의 그 언어를 둘러싼 그런 논쟁들을 우리가 봤었어요. 그 수사학을 둘러싼 그 논쟁에서도 마찬가지로였던 거죠.

수사학을 둘러싼 논쟁에서도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그러니까 아까 인식론이라는 말 안에서 그 전자에 해당하는, 좀 전에 했던 과학철학과 유사한 그런 의미에서의 그 수사학과 철학을 둘러싼 논쟁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하나의 회랍어, 에피스테메라는 말 거기서 ‘에피스테몰로지epistemology’ 라는 말이 나온 거죠. ‘에피스테메’라는 말을 이제 어떤 의미로 우리가 많이 쓰나요?

물론 학문, 과학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의 학문적 단위’. 그런데 그 학문적 단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학문적 단위라고 하나면, 이건 흔히 우리가 현대 학문체계를 놓고 비판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하는 개념인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대학에 가면은 대학에 학과들이 나뉘져 있잖아요. 다양하게 학과들이 나뉘어져 있는데, 대학에 나뉘어져 있는 학과 같은 것이 어떤 기준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냐.

그게 대학에 있는 학과가 이제 무슨 학과 무슨 학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언어학과’ 뭐 ‘철학과’, ‘심리학과’, ‘사회학과’. 그게 단일한 학문의 경계와 학문의 경계와 동일한가, 이제 그 문제에 대해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저기 수사학이 있었던 당시에 만약에 대학이 있었다면 ‘철학과’ ‘수사학과’ 뭐 이런 것이 있었겠죠. 그리고 뭐 또 그 이후에도 뭐 다른 학문이 등장했을 때도 무슨 학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게 과연 학문적인 분류방법일 수 있는가, 그런 문제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 ▲ 인식론 범주에서 발생하는 논쟁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학 안에서도 많이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하기도 해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학문 안에서 그 ‘사회학적인 어떤 경계의 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그 사회학적인 의미를 쓰느냐 하면, 그 어떤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집합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근거로 모여 있는지 그런 기준인거죠. 그랬을 때 이제 뭐 사회과학대학이라든가 뭐 자연과학대학이라든가 이런 뭐 인문학이라든가 그런 것. 그런 식의 예를 든다면 철학 안에서도 한 철학과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어떤 특정 어떤 선생님 담당은 어떤 분야고, 어떤 선생님은 어떤 담당 분야고. 그랬는데 그 어떤 ‘A’라는 선생님이 영역이 ‘B’라는 선생님이 다루고 있는 영역을 뭐 다룬다더라, 그건 내 영역이 아닌데 그 사람의 영역이 아닌데 뭐 이런 논쟁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전혀 학문적인 논쟁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학과라고 하는 것들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과에서 그런 것들을 다루면, 우리과하고 중복이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대학에서도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과거에 철학과 수사학의 논쟁도 그런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였다

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의 그 파워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 당시의 그 주된 이데올로기를 말하자면 국가를 움직일 수 있는 이데올로기, 그걸 둘러싼 논쟁들이었던 거고.

그래서 국가를 어떻게 이제 다스리는데 혹은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인재를 양성하는데 교육의 차원에서 얘기를 하자면 이것이 더 유리하다 그런 거였던 거죠. 철학이 그런 거였고 수사학이 더 유리하다 철학이 더 유리하다 뭐 이런 논쟁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탄생이 되고, 언제 뭐 쇠퇴하게 되고, 언제 다시 부활하고. 이런 논쟁들이 다 그런 의미에서의 논쟁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20세기의 수사학이 재비상하게 됐다는가 이런 이야기들도 다 그런 맥락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죠.

#### ▲ 20세기 수사학의 분파와 흐름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학문의 내적인 단위 안에서 이제 얘기를 한다면. ‘수사’, 일단 그러니까 뭐 ‘학’자를 뺄 수 도 있는 거죠. 수사라고 하는 거는 것이 이제 뭘 얘기 하는 건지. 언어 안에서 수사를 한다는 것이 무슨 애긴지.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20세기에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새롭게 부상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두 개의 학파가 이제 크게, 학파라기보다는 두 개 두 방향으로 수사학이 이제 발전이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하나가 그 논쟁이라고 하는 과거의 수사학자들이 주 무기로 썼던 논쟁술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하면은 그 말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언어를 활용하는 것,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거라고 했었죠.

주로 ‘페렐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벨기에학파’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여전히 이제 벨기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또 하나의 방향이라고 한다면 교육. 수사가 과거 플라톤 이후로, 플라톤에 의해서 한 풀 꺾여서 그 이후로는 이제 무장해제된 거죠? 이것은 어떤 이데올로기의 장에서의 그 퇴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 이후로는 이제 교육의 차원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교육의 차원에서 많이 다루어졌었던, 그러니까 문학회론으로 주로 들어갔는데, ‘은유’, ‘환유’라는 그런 문제들하고. 그러니까 그 은유와 환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양하게 이제 그 나열을 하는 그런 활동들이 이제 수사학적인 연구들이었던 거죠.

### ▲ 뮤(μ) 학파의 등장과 흐름

그게 인제 현대의 언어학 이론하고 결부가 되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발전한 것이 또 벨기에의 많은 학자들이 주축이 되가지고 그룹 ‘뮤’라고 하는, 희랍어의 그 ‘M’ 발음에 해당하는 ‘뮤’라고 읽기도 하고 ‘미유’라고 읽기도 하고.

인제 희랍어에서 쓰는 이렇게 쓰죠 ‘μ’ 이렇게 있잖아요? 일부러 인제 ‘M’ 그 우리 많이 쓰는 알파벳 ‘M’이라고 하는 상징성. 그거를 가지고 저런 말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는 은유나 환유나 메타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메토님’이라는 말 그 ‘M’자에 대한 그 어떤 상징성, 그것 때문에 뭐 저렇게 한 거죠. 일련의 학자들, 학자 그룹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그 일종의 학파라면 학파인거고. 그 하나의 대상을 연구하기 위한 하나의 그룹 이름이 그룹 ‘뮤’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일련의 학자들이 인제 그 작업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현대의 수사학의 전개가 그쪽으로 그 두 방향으로 갔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 페렐만 중심으로 하는 그 이론 전개 과정은, 과거의 고대에서 여러 철학적인, 철학 안에서 다뤘던 그 문제들과 부딪혔던 거예요.

특히 또 그 분야는 그 다른 예를 들어서 인제 커뮤니케이션이론이라든가 다양한 20세기 와가지고 새로운 어떤 담론들이 생겨나오잖아요. 그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이런 거. 그것들이 타 분야, 예를 든다면 법학이라든가 무슨 의학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아 이제 요즘말로 한다면 ‘여러 학문 간의’, ‘제학문 간의’, 그런 거 있잖아요? interdisciplinary. 그런 차원에서 인제 결부가 돼 가지고 많이 연구가 되기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아까 후자였던 그룹 ‘뮤’라고 하는 경우에는, 주로 이제 문학에서 문학이론으로. 물론 문학이론 안에서도 이제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 논쟁 중에서, 어떤 ‘형식주의’라는 말로도 얘기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면.

뭐, 글썄요. 하나의 용어 안에 두 카테고리를 나눈다는 것이 위험한 측면도 있지만 그 형식주의라는 말로 대표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 그 다음에 낭만주의 사조가 주로 반대에 속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작가의 직관적인 것들이 더 강조가 되는 것이지, 형식적인 어떤 틀, 그런 걸 통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주로 인제 낭만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문학 안에서 나왔고요.

반면에 인제 러시아 형식주의 그 안에서도 있었지만. 그 안에서의 이야기들은 낭만주의에서 주장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좀 전에 어떤 환유라든가 은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언어 안에서의 우리가 볼 수 있는 매커니즘이고.

그런 걸 통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물론 분석도 그렇지만, 창작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이 같이 논의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형식주의라든지 이런 쪽에 속하는 부류에서 주로 얘기가 되는 식의 발전이 되었던 거죠.

그룹 ‘뮈’를 대표로 하는, 어떤 문학이론으로서의 수사학이라는 것은 낭만주의 이론 같은 데서는 굉장히 배격이 되고 그랬었던 거죠. 수사학은 굉장히 이제 뭐 배격이 돼야 될 그런 대상으로 여겨지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차원에서, 그러니까 저 ‘신수사학’이라고 불렸던 그 ‘페렐만’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수사학 논쟁 쪽. 그리고 또 하나가 문학이론과 같이 연구되었던 그룹 ‘뮈’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수사학 이론, 그렇게 두 가지가 이제 20세기에 수사학의 논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 ▲ 언어에 대한 두 가지 관점

그런데 수사학 안에서 다뤘던 언어들 같은 경우, 결국은 많은 문법학자들이 이야기 하는 언어학에서는 주로, 이제 우리가 제1주 2주차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20세기 들어와서 새로 시작이 되었던 그 언어학이라고 하는 학문 안에서는 주로 의미의 단계를 많이 배격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의미를 제외한 언어의 형식적인 부분, 그러니까 언어의 그 문법적인 부분을 주로 다루는 것들이 이제 언어학의 그 대상이라고 했었잖아요? 의도적으로 의미를 이제 배제하고 다뤘던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수사학이라고 하는 분야는 철저하게 의미 안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분야예요. 그러니까 그 형식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형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내용이라든가.

뭐, 말하자면 이게 의미인지 혹은 의미라든지 아니면 그 어떤 문법이라든지 이런 관계. 그 개념들이 서로 어떻게 정립이 돼야 되느냐, 이게 결국은 언어를 둘러싼 가장 그 중심 테마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의 언어라고 하는 그 큰 구조물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혹은 뭐 다르게 얘기한다면 언어라고 하는 그 거대한 구조물이 어떻게 구성 돼 있는지가 아니라 그 반대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구성물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이야기죠. 대립되는 관점이기도 하고. 말하자면은 지난번에 얘길 드렸던 것처럼, 소쉬르가 책의 그 앞부분에서 언급을 했던 ‘언어학의 대상을 어떻게 볼

것이나' 하는 그건 어떻게 보면 언어학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 다른 분야에도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담론일 수 있어요.

### ▲ '학(學)'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언어학을 어떻게 볼 것이냐, 언어학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언어학이란 무엇인가? 그런 문제는 결국 그 '언어' 자(字)를 빼놓고, '학(學)'이라는 말로 그대로 적용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OO'학'이라는 게 무엇이냐? 거기서 소쉬르는 그 다른 차원에서 제가 그 실증주의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엄연히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소쉬르의 그 이론에서 여기서는 실증주의적인 그런 관점이 아니라 바로 이점에서 당대 유행했던 그 실증주의와 단절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건데.

그 어떤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하나의 단어를 놓고 봤을 때, 소쉬르는 '뮤'라고 하는 단어를 놓고 얘기하는데. 하나의 불어의 형용사인 저걸 뭘로 볼 것이냐. 라틴어의 어떤 특정 단어가 어떻게 진화가 됐다,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되느냐?

그게 이제 언어학의 대상이냐, 언어학자가 할 일이냐, 그런 연구가 그 당시 많이 했던 분야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그 '음'이라고 하는 발음하고 '위'라고 하는 발음하고 겹쳐서 합쳐진 그런 발음,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되는 거냐. 그것도 역시 그때 많이 유형이 됐던 그런 분야죠.

아니면 그 이외에 의미학적인 관점에서 보느냐, 그 관점에 따라서 무수한 방법이 나올 수 있는데 도대체 언어학이 뭐냐 그런 질문을 던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그런 관점을 분명히 인제 밝히죠.

본인의 그 관점, 그 관점의 입장을 분명히 하죠. 그러니까 미리 주어져있다는 관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배격을 하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언어학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 진다.'고 해서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 하나의 형식적인 틀로 인제 묶어놓은 거죠.

그러니까는 그 의미론적인 것들을 그 이후로도 같은 방법으로 배제를 하는 거죠. 언어학의 대상이란 이것이다, 다른 이런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이다. 근데 그랬을 때 이제 그 맹점이 뭐가 있냐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그 학문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학문이냐면,

### ▲ 간(間)학문을 성취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전제

그 ‘discipline’이라는 그 의미에서의 학문. 그러니까 ‘학’, 물론 ‘학’ 그렇죠, ‘학문’이라기보다는 ‘학제’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제도적 의미에서의 학문적 구분’이라는 의미의 학제. 그래서 그 학제간의 어떤 대립, 그건 어떻게 보면 학문적 대립하고는 다른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사회학적인 어떤 그런 문제잖아요?

학문적인 논쟁이 아니라 그 제도권 안에서의 그 그룹 간의 어떤 그 논쟁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언어학이 전락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학의 대상은 이것이다, 그 나머지는 뭐냐? 이거는 논리학자가 할 일이다, 아니면 이걸 수사학자가 할 일이다, 이런 식의 논쟁.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학제 간에 교통정리는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런 것은 이제 내가 할 분야가 아니니까 이건 당신들이 할 분야고, 이건 당신들이 할 분야인데 이쪽은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거고.

이런 식 그런 식의 학제간의 교통정리는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최근에 들어와서 다양한 ‘간(間) 학문’ 뭐 이런 의미도 있고, 학제간의 어떤 소통, 대학 안에서도 새로운 또 옛날에 없었던 그런 패러다임들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할까 ‘협동과정’ 뭐 이런 용어로 쓰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모든 학문을 학제 간으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 학제들 사이에서의 그 소통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기 때문에 학제간의 경계가 이제 허물어지고 다시 이렇게 뭐 모여서 다시 이야기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얼핏 듣기에 그럴 듯하게 들리기는 하지만 앞뒤가 바뀐 그런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처음에 이 경계선부터 ‘학문 간의 어떤 그런 경계가 아니라 학제간의 경계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의 소통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학제간의 그 경계를 허문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뒤가 바뀐 대화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서 보듯이 언어학이라고 하는 학문분야가 과연 싸이언스로서의 학문이나 아니면 그 아까 이제 얘기 한 것처럼 하나의 학제라고 할 수 있는 거냐. 대학에서 뭐 언어학과 이런 과들이 있잖아요?

그럼 언어학과에서 다루는 문제니까 다른 과에서는 다루면 안 되는 문제, 그런 학제들 간의 학제들의 학제로써의 그런 이 모든 것들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 뭐라고 할까요, 깨끗한 논의가 되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뭐가 언어학이나.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 수사학적인 어떤 분야, 이런 건 전혀 언어학에서는 배제하는 분야였었는데. 그리고 그럼 언어 수사학에서는 뭐냐? 언어학과 수사학과는 뭐가 다르냐? 그런 논의가 사실은 그 거의 불가능하다



는 거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그림 학제간의 경계를 허물고 다시 모이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식이 되는 건데. 그거는 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후 관계가 잘못된 거죠. 그 학제를 우리가 규정할 때만이 이런 것들의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그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 ▲ 학문 간의 경계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그러면 그 학제 간의 그 대립이 아닌 그 학문이라고 하는 학문 간의 뭐 대립이라면 대립일 수 있는 거고. 학문 간의 경계, 학제 간의 경계가 아닌 학문 간의 경계, 이런 거는 뭐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가. 인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논의를 해볼 수 있는, 오늘 언급이 될 그 두 명의 학자가 베르그송(Henri Bergson, 1859~1941)하고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1770~1831), 두 명이 언급이 되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두 명의 철학자가 언어학 안에서 그리고 아니면 언어철학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인데. 언어철학이나 언어학 안에서 크게 비중 있게 다룰 수 있는 인물은 아니에요. 그 두 사람이 물론 언어학자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언어학의 어떤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두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이름이 그 언급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모델, 언어를 언어라고 하는 설명해야 될 그 모델 그 차원에서 우리가 인제 한 번 유심히 볼 만한 그런 모델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두 명의 이름이 언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모두 마찬가지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 하나의 방법론적인 그런 내용이 뭐가 있냐면, 어느 분야이던 간에 우리가 그 내적인 어떤 그 고유의 법칙이 있어야 되는 거죠.

### ▲ 학문의 고유성

그러니까는 만약에 인간이라고 하는 대상을 설명하는데 있어가지고, 다른 학문에서 설명이 되는 어떤 법칙이나 이론들을 가지고 모든 것이 설명이 다 된다고 한다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 그 고유의 그 필요성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든다면 말이죠. 우리가 인제 그 물질적인 측면을 다루는 ‘과학’이 있잖아요? 그 자연과학 안에서도, 그 다음에 생물, 생명이라고 그런 거를 다루는 그런 학문이 있는 거고, 보통 생물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물질세계에서의 그 법칙을 가지고 생명을 설명을 할 수가 있다고 만약에 한다면, 그러니까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늘 그 하나의 그 설명하는 방법일 뿐이지 학문이 곧 그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본래 존재하고 있는 그런 차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학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건데.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되는 어떤 방법이 지 그 자체가 대상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소쉬르의 얘기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대상이 미리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방법으로 접근을 하자’는 식으로 밖에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예를 든다면 화학적인 모델로, 화학적인 어떤 방법으로 모든 생명의 법칙이 설명이 된다면 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필요하지 않은 학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아니면 물리적인 법칙으로 모든 그 동물이나 운동이 설명이 다 가능하다면 저 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을 수 있는 거죠. 똑같은 방법으로 생물학적인 어떤 방법으로 그 모든 인간의 그 지적 활동 이런 것들이 다 설명이 된다면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을 연구하는 인간학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그 동물의 생태학 있잖아요. 동물의 지능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우리가 ‘동물에게도 언어가 있다’라든지, ‘동물에게도 사회를 구성할 능력이 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인제 과거에 피아제(J. Piaget)라고 하는 그 인식론자 있었죠. 그 인식론학자! 그 스위스의 피아제의 이론도 크게 보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너무 광범위하게,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인지론이라고 묶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 인지론이 너무 광범위해져요. 인지론이라고 하는 분야가 너무 광범위해지는데, 아 그래서 그런 용어는 생략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동물도 저 사회를 구성한다, 단지 인간의 사회가 좀 더 복잡할 뿐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동물도 언어가 있다, 단지 인간의 언어가 좀 복잡할 뿐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 ▲ 학문의 내재적 특징 - 고유성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우리가 만약에 사회도 있고 언어도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언어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아이덴티티, 정체는 똑같다는 데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동물의 언어와 인간의 언어의 차이는 단지 좀 더 어휘가 많아진다는가 아니면 이렇게 결합하는 것들이 좀 더 복잡해진다는가. 그렇게 된다는 이론의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의 이론을 가지고 두 가지 대상이 다 설명이 된다면, 두 가지는 다 하나

의 학문 안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인간학은 존재할 수 있는 어떤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인제 뭐 인문학이라고 하는, 인간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게 아까 얘기했던 ‘그 하나의 학문이 존재할 수 있다면 그 학문 안에 고유한 법칙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거죠. 그게 없다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그 의미가 상실돼요. 같은 인간의 현상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 ▲ 언어의 정의에 관한 오류

사회, 이런 논쟁들도 20세기에 있었던 것들인데. 그 사회학하고 언어학하고 사이에서 논쟁도 마찬가지예요. 그 많은 언어학자들이 언어라고 하는 것을 그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라는 식으로 정의를 내리는 큰 오류를 범하죠.

그렇게 되면,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라고 한다면, 커뮤니케이션은 사회를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는 나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가 나 이외의 다른 타자라고 하는 또 다른 아이덴티티와의 사이에서의 어떤 그 동일성과 그 배타성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나와, 앞에 있는 이 대상과 공통점이 없다고 한다면 커뮤니케이션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와, 앞에 있는 이 사람과 전적으로 동일하다고 전체를 한다 해도 커뮤니케이션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있다고 하는 것은 동시에 나와 이 앞에 있는 다른 대상과 사이에 동일한 어떤 점이 있고 동일한 점이 있는 반면에 다른 점이 있다는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저 동일, 동질성과 인제 이타성,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인제 사회의 가장 기본,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나와 상대방 사이의 동일한 어떤 그 동일한 점이 있기 때문에 교류를 하는 거죠.

근데 전적으로 동질성만 있다면 교류 필요가 없잖아요? 그 자체가 난데,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이심전심, 이심전심 다 통하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의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교류.

그러니까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이,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전제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라고 한다는 말이 된다면, 결국은 그 사회학적인 수단일 뿐이라는 결과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회학적인 법칙으로 언어학이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 ▲ 언어가 수단이라면 언어학 존재의 필연성은 허구

그랬을 때 이제 언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따로 하나의 학문으로서, 학제의 애기가 아니죠. 다시 아까 얘기했듯이 학제와 학문은 우리가 분명히 구별을 하자고 그랬었죠. 학제로서가 아니라 학문으로서 그 언어학의 필요성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학제로써는 존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언어학자가 있으니까, 언어학자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학제로써는 존재할 가치가 있는지는 몰라도 학문으로써의 존재가치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논쟁이 사회학자들이 많이 제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럼 언어는 필요가 없는 거죠. 언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예를 든다면 많은 그 기호학자들도 그렇고 마찬가지로요.

그 여러 가지 그 커뮤니케이션의 체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수화도 있고 손짓 발짓 이런 것들. 물론, 수화문제는 좀 달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언어학적으로 정확하게 다 얘기가 돼야 되는 것들인데.

우리가 언어 말고도 수화라는 그 체계도 있고, 아니면 그 수기 가지고 흔드는 거 있잖아요? 그 수기를 가지고 손으로 어떻게 하면 어느 쪽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어느 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식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색깔가지고 뭘 한다든가 아니면 그 우리가 스포츠게임을 하나 보더라도 심판이 손짓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이게 무슨 의미이며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도 모두 그 큰 의미에서의 언어라고 아니면 더 큰 의미에서의 기호라는 말로도 하죠. ‘기호라고 하는 언어는 하나의 그 기호에 불과하다’ 이제 그런 식으로 크게 보면 그것은 저기 사회학의 활용 분야예요 전부.

그렇게 본다면, 그러니까는 ‘세미오틱’이라고 하는 말 많이 우리 쓰잖아요? 큰 의미에서 그 기호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학적인 활용 분야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호라고 하는 그 전체를 아까 얘기 했듯이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우리가 두었기 때문에 하나의 그 동일한 한 사회 안에서 동일한 그 기호체계를 만들어 놓고 그걸 공유 한다는 그런 차원이죠.

### ▲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와 롤랑바르트(Roland Barthes)

언어를 이제 그런 식으로 본다면 물론 동시대 인물은 아니지만 소쉬르와 롤랑바르트라고 하는 두 사람은 기호학과 언어학을 보는 그 관점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소쉬르라고 하는 인물의 경우는 언어학의 창시자라는 말까지 붙여줄 수 있을 만큼 언어학에 큰 공헌을 한 사람

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호학과 언어학 사이에서의 그 관계가 어떻게 보면 그 롤랑바르트하고 반대예요.

롤랑바르트는 오히려 기호학자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소쉬르는 크게 큰 부류가 인제 기호학이라고, 기호학이 더 큰 범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체계가 있는데, 그 중에 언어가 한 체계이기 때문에 언어학은 기호학의 한 분야이다, 부분이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인제 우리가 언어학의 창시자라는 타이틀을 붙일 수 있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좀 전에 그런 이유들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그 사회학적인 그런 논의 그 안에서밖에 언어가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식으로 인제 또 오류를 범하게 돼요.

반면에 인제 롤랑바르트의 경우는 꼭 반대로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얘기를 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아까 소쉬르가 얘기 했듯이 그 모든 기호들의 학문,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호체계가 있다. 복잡도 있고, 뭐 아까 얘기 했듯이 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인제 그 중에 언어도 하나의 기호체계이기 때문에 기호학의 한 분야이다’라고 하는 그 소쉬르의 주장에 반대를 하고.

그렇게 얘기 하지 않고, 그게 아니고, 그 ‘모든 다른 기호체계들도 결국은 그 법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언어학적인 그런 법칙 위에서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시니피앙-시니피에 그런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따라서 ‘언어학이 그 상위 분야이고 그거를 적용한 것이 기호학이다’ 이런 식으로 반대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뭐가 상위다 뭐가 하위다라는 논쟁을 떠나서 그 양쪽을 다 들여다봐도 결국은 그 언어의 그 고유성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써의 그 언어를 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와 타자 사이의 동질성과 이타성 사이의 교감 그리고 중재 그런 역할로서의 그 언어로 결국은 제한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결국은 그 고유의 법칙이 있지 않다면 언어학을 포함한 그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로 지인거죠! 고유의 법칙을 우리가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그 학문의 그 정당성은 우리가 인제 보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 ▲ 학문의 외적 충족 조건

내적인 그 법칙. 우리가 인제 또 하나를 얘기 한다면, 그 학문을 한다는 데 있어 과학을 한다는 데 있어서의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한다면, 그 내적인 어떤 고유의 법칙이 아니라 이번에는 외적인, 말하자면 그 대상하는 어떤 그 지시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사변적인 학문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그 현실세계 안에서의 어떤 그 대상하는 그 실재의 세계가 있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게 저 과학이라고 하는 것

에서의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거죠. 두 번째의 그 중요한 법칙이 되는 거죠.

### ▲ 인문학의 과제,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의 문제

그게 과학에서 말하는 반박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하고 동일한 얘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그거는 그 내적인 체계인거죠? 내적인 체계를 문제로 했을 때, 예를 든다면 지난 시간까지 여러 차례 언급을 했던 엘름슬레우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의 언어학적인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내적인 체계로써의 그 세련도가 어떻게 보면 언어학 여러 이론들 가운데서 가장 높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엘름슬레우의 글로세마틱스란 학문은 굉장히 그 사변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추상적이고.

물론 그 엘름슬레우 본인 스스로도 애길 했지만 언어의 대수학이라고, '언어의 대수학'이라는 표현을 할 때 Linguistic이라는 말을 안 썼다고 그랬죠? 글로세마틱glossematic이라는 말로 따로 만들어 썼다고 했던 것처럼 굉장히 사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으면 '아 그런가보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 언어하고 어떻게 실제로 그런가 하는 그런 증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별로 열려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그 인문학이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운명적인, 숙명적인 문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증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죠.

### ▲ 증명을 위한 임상학의 등장

어떻게 이걸 맞다고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반박을 할 수 있으며,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그 임상학이라고 하는, 프로이트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치료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물론 프로이트는 의사 출신이지만 그리고 이제 치료를 하려고 하기도 했지만, 본질적인 관심은 치료의 목적이라기보다 이해를 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환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상인에 관심이 있는 거죠. 망가진 걸 보면서 '왜 이게 망가졌을까'하는 질문이 결국은 '왜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가'하는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죠.

또 아동심리학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아동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그 사람들의 실제 관심이 아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인에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 아동을 연구함으로 인해가지고 성인이랑 뭐가 다른 건지.

어떻게 보면 이게 잘못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좀 이렇게 그 맥락 안에서 이해를 하면서 들으시라는 그 전제 하에서, 아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 정상적인 그 뭐라고 할까요, 어른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차원에서 정상적이지 않냐, 그거를 얘기하는 것인데. 인제 만약에 아동하고 성인하고 모든 것이 똑같다면, 단지 ‘키가 작다’, 단지 ‘힘이 더 약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면 생물학적인 설명 밖에 안 되죠?

아 그러니까 뭐 짧은 사자가 늙은 사자보다 더 세고 그런 차원에서의 그 아동은 아니죠. 그 인문학적인 차원에서의 무엇이 아동이나, 결국은 뭐가 성인이나 하는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뭐냐, 인간을, 인간이 되기 위해서 그 아직 부족한 부분이 뭐냐 그거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임상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방법으로밖에 갈 수가 없었던 거죠. 다른 물리학이라든가 심지어는 생물학 분야에서도 정상적인 것을 우리가 쪼개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거를 일부러 망가트리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해부라는 것도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멀쩡하게 잘 구성 되어있는 것을 일부러 부순다는 거죠. 쪼갬다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들여다보는 거죠. 아, 이게 이래서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럼 그래서 붙어 있었을 때는 그렇게 해서 인제 했었구나 이런.

그런 방법이라면은 인간학 안에서는 그런 방법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깨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부서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망가질 때까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임상학이라고 하는 것이 인제 우리가 20세기 들어와 가지고 새롭게 출현을 하는 건데.

#### ▲ 고유성에서 벗어나기도 하는 임상실험

그래서 그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던 것처럼 그 실어증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연구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실어증을 중심으로 하는 그 연구 안에서 도 지금은 제가 이런 일들을 그 현실 세계와의 어떤 그 대화, 그 차원에서 보고 있잖아요.

아까 첫 번째 얘기가 되었던 그 ‘타 학문과의 중복되지 않는, 혹은 타 학문에 종속되지 않는 고유의 설명 법칙이 있는가’, 논리적인 어떤 그 법칙이 있는지의 차원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그 이론이 실재 있는 대상들과 이 저 교류가 가능한가, 다시 말하면 증명이 가능한가’ 그 차원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 실어증이라든가 이런 그런 임상학을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아까 얘기 했던 그 첫 번째, 다시 말하면 ‘고유성’, ‘중복되지 않는’ 혹은 ‘중속되지 않는 고유성’을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와 부딪치기도 해요.

왜냐하면 실어증을 다루는 그 역사는 그리 짧은 게 아니에요. 상당히 오래 됐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면, 그게 진짜 언어문제인가 싶은 그런 것들이 인제 많이 있는 거죠.

실어증이라고 불렀던 많은 경우, 그게 ‘진짜 언어 문제라서 그렇게 됐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한 가지 예, 간단한 예를 든다면 글을 잘 못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글을 안 배워서 못 쓰는 게 아니라 못써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데 그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언어활동에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닌데 글을 못 써요. 손이 이상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거에서도 하나의 언어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진짜 언어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지, 이런 것들이 명확한 근거가 인제 미약했던 게 많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글로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말로 이루어진 것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 이게 진짜 언어의 문제인지 아님 다른 분야의 문제인지.

다시 말하면 임상을 하긴 하는데 이게 그 고유성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임상실험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거에서 인제 아까 첫 번째에서 얘기했던 조건들과 중복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것들, 그런 의미에서 실어증을 둘러싼 언어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유심히 봐야 되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금 있다가 두 번째 파트에서 들어갈까요?